

“산불로부터 목조문화재 지켜라”

산림청·문화재청, 66개 사찰에 산불예방 이격공간 등 구축

국보·보물급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의 목조건축물과 산림사이 20~25m 거리의 나무가 없는 '이격공간'을 조성하는 '문화재 산불피해 예방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문화재 주변 산림에는 이격공간과 연결해 숲아베기, 가지치기, 잡목제거 등의 숲가꾸기를 한층 강화해 산발발생시 산불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확산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한 '완충지대' (25m이상)도 조성된다.

산림청과 문화재청은 10월 1일 합천 해인사에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 하영제 산림청장, 이근무 문화재청장, 심의조 합천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협약'을 체결하고, 대장경판전과 홍제암 주변 산림에 대해 폭 30m, 거리 1km로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숲가꾸기 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하영제 산림청장은 "숲가꾸기는 나무의 생장을 촉진

시켜 산림을 건강하게 만들고 목재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지만 유사시에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고, 문화재 주변 경관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며 사업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협약'은 2005년 4월 양양지역의 대형산불로 낙산사가 소실되고 올해 2월에는 방화로 송례문이 소실되는 등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화순 운주사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변 산림을 모두 불태웠으나 운주사 대웅전 등 사찰 건물 9동을 산불로부터 무사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숲가꾸기의 산불피해 예방효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산림청과 문화재청은 해인사 협약식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국보·보물급 문화재를 보유한 전국의



10월 1일 합천 해인사에서 열린 '문화재보호를 위한 산불방지협약식'. 앞줄 왼쪽부터 이근무 문화재청장,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 하영제 산림청장. 사진=손범천 대구지사장

66개 사찰을 대상으로 '문화재 숲가꾸기'를 완료할 계획이며, 기타 목조 문화재에 대해서도 2009년까지는 숲가꾸기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숲가꾸

기 사업은 산불로부터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으로 기대된다"며 "산림청 및 문화재청과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종교중립법 제정이 국민통합의 시작”

민주당 연등회·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합동토론회 개최

공무원종교중립법 제정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연등회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9월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공무원종교중립법의 필요성과 가능성' 토론회가 그것.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청하 스님, 재무국장 원철 스님, 사회국장 재경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스님들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 송영길 최고위원, 장세환·김개균·노영민 의원 등 국회의원, 윤남순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 등 정관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지석 목사(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소장)의 사회 아래 박광서 대표(서강대 교수·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김형남 변호사(신화 법무법인), 강창일 민주당 국회의원(연등회 부회장)의 발제가 진행됐고, 조유종 신부(천주교부신학교), 김상근 교수(연세대 신학과), 허진민 변호사(법무법인 정안), 이지범 집행위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박선숙 국회의원(민주당)의 열린 토론이 전개됐다.

제1발제에서 박광서 대표는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담배를 싫



9월 29일 열린 민주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합동토론회에서 인사말하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어할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권 리라고 판결했다"며 "개인의 종교자유와 별개로, 선교회 권리보다 선교회 받지 않을 권리가 우위"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교회투표소'와 '공직을 이용한 선교회' 등 6개 목자에 걸친 50여개의 사례를 제시하며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의 당위성도 밝혔다.

제2발제에서 김형남 변호사는 한·미·일 3국을 비교하며, "3국 모두 헌법상 종교자유와 종교중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하위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종교편향 사례는 무수

히 많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정문제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이거나 의도적 결과"라며 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3발제에서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MB정부가 시행하는 시행령 하위 '공무원 복무규정'을 통한 제제는 약하다. 헌법 위반자는 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종교갈등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에 법제정이 시급하다. 법제정에 한나라당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남양주시장·창원중부서장 '종교편향' 관련 사과

이석우시장 시목위 구성, 강선주서장 '엘리스증후군' 망언 물의

종교편향 관련 행위와 신문 기고로 물의를 빚은 남양주시장과 창원중부경찰서장이 잇달아 불교계에 공식 사죄했다.

시목(市牧)위원회를 구성하고 '남양주시 성시화를 위한 지도자 초청 기도회'에 참석, 종교편향 논란 일으켰던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9월 27일 지역불교계 스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죄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저녁 남양주사암연합회(회장 금담·무량사 주지) 종교편향대책위 2차 긴급확대회의가 열린 남양주시 회담을 원상사를 방문해 "이번 건으로 인해 스님들에게 잡사나 실망과 아픔을 드리게 돼 송구하다"고 사죄했다.

시목위원회 위촉장 전달과 관련, 이 시장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드림스타트사업에 종교계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생각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종교편향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40여 스님들

은 이 시장의 발언을 듣고 난 뒤 이를 공식 사과로 인정하고 박수로 화답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대한 불교계의 비판을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증후군'이라 지적한 지방 일간지 기고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선주 창원중부경찰서장은 9월 30일 이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강선주 서장은 경남도민일보 광고면에 "이 글로 인해 대덕스님들과 불자들 마음에 상처를 입힌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강 서장은 사과문을 통해 "경찰 입장을 대변하는 데 치중해 불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등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한 불찰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향후, 불교계에서 우려하는 종교 편향 발생 시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이며 필요하면 경찰서내에 종교편향 방지 위원회 등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우·박지원 기자

대한불교다도회 창립

오대산 월정사 일대서

한국불교 전통다례를 복원하고 현대적인 불교다례를 개발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다도회가 창립된다.

대한불교다도회 창립범회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의정)는 10월 10일 오대산 월정사·상원사 일원에서 창립 기념법회와 함께 '전국 차인 108들차회'(월정사 관음선다회 주관)를 연다.

이번 행사는 10일 오전 상원사 문수전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효명·보천대사 헌다례를 시작으로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이 월정사 대웅전에서 봉행하는 다도회 창립법회로 진행된다.

대한불교다도회는 앞으로 불교 전통 헌다의식을 복원하고 춘추헌다제와 들차회를 전국 교구분사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또 부처님오신날·연등축제에서 진다례를 주관하는 등 불교전통다례의식을 복원하고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가연숙 기자

영석학원, 동국대에 영석고 기부

10월 2일 정식 기부약정 체결

학교법인 영석학원(이사장 안재란)은 동국대(이사장 영배)와 10월 2일 영석고 이사장실에서 기부약정 체결식을 갖고 영석학원 산하 영석고등학교를 동국대에 기부했다.

기부자 안재란 여사(83)는 동국대 국문과를 1953년 졸업하고, 현재 학교법인 영석학원 이사장과 사단법인 체린불교사상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영석고는 1970년 개교해 현재 17

학년 학생 600여명 규모의 학교다.

2007년부터 임시이사가 5명 파견돼 현상대로는 학교법인 합병 등 정상적인 기부절차 진행은 어려운 상태다.

동국대 관계자는 "영석학원과 경기도 제2교육청, 교과부 산하 사회분쟁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영석학원의 정이사 체제 환원 및 기부 승인 등을 공동으로 청원할 계획"이라 말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언론문화상 공모

11월 5일까지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은 11월 5일까지 '제16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자 후보를 공모한다.

불교언론문화상은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선정된다. 이중 최우수 작품에는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상금 500만원)이 주어지며, 불교언론인 중 공로가 있는 자에게 불교언론인상(300만원)이 주어진다.

또한 애니메이션·인터넷·뉴미디어 등 전 부문에서 우수한 작가, 연기자, 단체 등에게 특별상(200만원)이 수여된다.

(02)2011-1779

이은은 기자

봉 무문관 근본도량 천축사 무자년 가을산신대제

귀의 삼보하옵고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도복산 산신님께 지극한 정성으로 재를 올리고 등불을 밝히는 무자년 가을 산신대제 7일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천축사 산신대제는 매년 봄, 가을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으로서 국운융창과 국민안락을 발원하고 지혜와 복덕이 구축하여 아무런 장애없이 모든 일이 원만성취 되기를 기원하는 재일입니다.
7일간의 산신기도로 사업번창, 상업번영, 지혜종명, 학업성취, 각종시험 원만합격 등 각자의 원하는 바 모든 일들이 원만성취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간 : 10월 7일(음력 9월 9일) ~ 13일(매일 사분정근)

입재법회 : 10월 7일 오전 10시

- ◆크스님 초청법문
- ◆살풀이 춤 공연

동참 : 1인 1등 5,000원
계좌번호 : 057-01-0591-272
(국민은행 / 예금주: 천축사)
기타문의 : (02)954-1474